DSU Dongseo University 동서대학교

# 东西大新聞

건학이념
기독교정신의 구현

교 훈
진리·창조·봉사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 : 2~3

제172호 2021년 5월 3일 월요일

The Dongseo University Press

발행·편집인 장제국 / 주간교수 오종서 / 편집국장 김경은 / 동서대신문사 617-716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산 69-1 TEL.(051)320-2141 FAX.(051)320-1361 / 인쇄처 부산일보사 (월간)

## 지역사회상생·협력 지원 사업 '3년 연속' 선정

### 인생의 2막, 배우로 펼쳐보자

▶에버그린 프로젝트 산학협력 협약식

우리 대학은 '지역사회상생·협력 지원 사업' 컨소시엄형에 3년 연속 선정됐다. 특히 이번 해는 신설된 장기형 과제에 선정되어 2년간 총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지역사회상생·협력 지원 사업이란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부산인재평생교육원에서 주관하며 부산 지역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이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대학이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 지역사회상생·협력 지원 사업'을 공모해 단기형 3개 대학, 장기형 2개 대학 및 학술 상점 3개 과제를 선발하는데 이중 우리 대학 '에버그린 프로젝트'가 장기형 사업에 선정됐다.

2020년에는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사)부산국제영화제와 공동으로 배리어 프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부산 배리어 프리존 확대 운영과 장애인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것이다. ▲배리어프리 뮤지컬 제작 및 공연 ▲베리어 프리 친화형 문화상품 제작 및 전시 ▲배리어 프리 영화 제작 및 상영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 라디오 방송 ▲비정형 콘텐츠를 위한 배리어 프리 APP 서비스 ▲배리어 프리 체험 프로그램 등을 추진했다.

이번 2021년도 우리 대학은 지역 내 노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에버그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장군 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취미생활과 경험을 제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일자리를 발굴해 수입 창출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이다. 기장군의 노인 문제와 우리 대학의 영화·영상 관련 분야가 부합되어 기획됐다. ▲에버그린 영화대학 ▲찾아가는 에버그린 공연 ▲에버그린 마을 미디어교육 ▲에버그린 에이전시 운영 ▲에버그린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세부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활용해 에버그린 영화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에버그린 프로젝트는 기장군청의 수요로 출발했으며 올해 부산시 지역사회상생·협력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 총괄 책임자인 우리 대학 LINC+사업단 지역협업 센터 김형우 센터장(디자인학부 교수)은 "동서대는 LINC+사업단의 지역사회혁신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해 2019년부터 3년 연속 지역사회상생·협력 지원 사업에 참여해왔는데 올해는 특히 신설된 2년 장기과제에 선정돼 더욱 뜻깊다. 동서대가 새롭게 선보이는 '에버그린 프로젝트'는 동서대의 강점인 영화·영상 분야와 기장군의 수요가 부합된 기획물로, 본 사업이 2023년 완공 예정인 부산종합촬영소와 연계해 기장군의 영화 및 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카이언스, I.A.LAB과 '시니어 케어를 위한 에버그린 프로젝트' 공동기획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령자의 빈곤과 고독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대학의 인프라와 기업의 기술력을 융합한 혁신적인 협약이다. '고령자의 행복한 삶'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을 변화하도록 노력하도록 지원한다. 기존의 노인복지는 의료 서비스에 국한되었지만 고령자의 능력 향상과 수입 창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조대수 단장은 "인구 초고령화 시대를 앞둔 현재, 에버그린 프로젝트가 국가 복지 정책의 난제인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인생의 황혼을 '배우'로 멋지게 펼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oujin6244@gmail.com

## 지역대 '업' 장제국 총장에게 듣는다

###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전략

▶장제국 총장 ▷사진출처 – 국제신문

장제국 총장은 지난 5일 대학 경쟁력 강화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지역사회가 대학 위기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며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트리플 전략'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맡아 정부에 대학 지원금 제한 최소화, 유휴부지 활용 규제 완화 요구, 팬데믹 후 유학생 2000명 등의 목표를 밝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교육부와 정부에 대책을 요구 중이며 단기적으로는 지원금 제한 최소화, 장기적으로는 규제 완화 검토를 전략으로 삼고 있다.

대학 내 시설을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해서 등록금이 수년째 동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인건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유휴시설과 부지를 활용해 수익창출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며 매주 전국 권역별 대학 총장 모임을 통해 출구전략 마련을 위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꾸준히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대학의 한 전략이다. 코로나로 인해 부산 지역 대학 유학생이 12.6% 감소했지만 우리 대학은 1.4%에 그쳤다. 이는 해외 대학 및 기관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 우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7.8%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코로나 이후 연간 유학생 수를 2000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영화영상 관련 전공은 중국과 동남아 유학생에게 한류의 열풍으로 특히 인기 있는 전공이라고 한다. 총장은 "모든 수업이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로 이뤄진다. 영어를 통해 해당 과목을 이해하고 한국어까지 익힐 수 있어 유학생이 만족한다"라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서울에 없는 정책인 큐칼리지(Q-College)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 질문해 도전과제를 정하며(Question) 그 답을 찾아가면서(Quest) 빠르게 성장하는(Quantum Jump) 인재 양성을 위함이다. 이를 통해 '부 캐릭터(부캐)'를 키우고자 한다. 자신이 전공하는 분야인 '본 캐릭터(본캐)' 외에 다른 특정 분야에 도전하는 부캐를 키우는 것이다. '쿼텀점프 도전 학기제'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도전하며 그 결과물을 최대 15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시스템화했다.

장제국 총장은 "부산시가 방패막이가 돼주지 못하면 지역 대학은 더 큰 위기를 겪습니다. 대학과 함께 대기업 유치 전략을 세우고,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대학에서 키워내는 협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부산교육청도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학과를 학생에게 충분히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oujin6244@gmail.com

##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 성공적인 2019년에 이은 2번째 선정

▶2019년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성과발표회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International Camp+

우리 대학은 '2021년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의 운영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며 19세부터 24세까지의 다국적 학생들 간 교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와 역사,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켜 국가 간의 우호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프로그램에서는 재학 중인 한국과 외국인 학생 각 30명씩 총 60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5월부터 참가자 모집을 시작해서 7월까지 본격적인 교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활동 또는 소규모 활동으로 진행될 것이다.

한경호 국제처장은 "문화체험, 지역 산업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국적 학생들 간 교류와 팀워크를 강화하고, 부산지역 산업의 중요도와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려 한다. 2019년도 우수 프로그램 장관상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작년, 2019년에는 '아시아의 허브 부산, 글로벌 청년의 꿈을 품다'라는 주제로 부산 지역의 글로벌 기업 및 산업 인프라에 우리 대학 ▲특성화 학부의 첨단 시설 ▲교육 인프라 ▲산학 네트워크 ▲전문 인력을 활용해 체험형 프로젝트 베이스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다국적 학생들 간 교류와 팀워크 강화를 위해 숙박형 견학 및 문화체험, 산업현장 견학 프로그램과 주제에 따라 팀을 나누어 실시하는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한국인 학생 42명, 외국인 학생 60명을 포함한 총 102명이 참가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산업단지 및 부산 스마트 기술 생태계 체험 ▲디자인과 창의적 사고 학습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상생과 발전 ▲부산 영화로 이야기하다 등의 다양한 탐방 활동을 했다. 수료식에서 '사상 복원 사업(Sasang Restoration)'이 최우수상과 상금 100만원을 받고 '전통과 정체성(Trident, Tradition & Identity)'와 '도시재생, 우리 곁의 세계(Urban Renaissance : World Around the Corner)'이 우수상과 상금 50만원을 각각 수여받았다.

지난해 11월 26일 '2019년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성과 공유회'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관광경영 이장기, 영화과 프라무디타 에이샤 등 참가 학생 4명은 여성가족부 장관상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을 받았다.

한경호 국제처장은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협업(Collaboration)과 소통(Communication) 능력을 보유한 인재가 필요한 시대이다. 한국과 다양한 국가의 외국 학생들이 지난 3주간 팀별 프로젝트 수행, 숙박형 역사와 문화체험, 산업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열정적으로 참가, 협업과 소통으로 훌륭한 프로젝트 결과를 도출해 준 학생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격려했다.

또한 "DSU, Go Global!(동서대, 세계로 뻗어가라!)"로 한국인 재학생들이 외국인 학생을 온·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영어, 중국어 등을 매개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올해 1학기에는 총 240명이 참가해 한국인 재학생 26개 학과 소속의 120명, 외국인 학생 120명으로 우리 대학 재학생뿐만 아니라 미국 세인트 메리 대학의 샌안토니오 세종학당, 인도네시아 페트라 크리스찬 대학의 수라바야 세종학당 등 세계 각지의 대학과 기관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유진 기자
youjin6244@gmail.com

## 인도 힌두스탄공과대와 교류협정 체결

### 끈끈한 유대관계로 맺어진 결과

▶인도 힌두스탄공과대학교와의 교류 협정식

우리 대학은 3월 31일 인도 힌두스탄공과대(HITS·Hindustan Institute of Technology and Science)와 다양한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나가기로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식에는 장제국 총장과 김정선 총괄부총장, 한경호 국제처장 외 2명과 힌두스탄공과대학교 스리드하라(S. N. Sridhara) 부총장 등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대학 간 학생과 교수 교환 프로그램 ▲공동 교육과정 ▲단기 연수 프로그램 확대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힌두스탄공과대학교(HITS)는 첸나이에 위치한 사립대학교로 인도 국가 평가인증위원회 A등급, 교수당 논문 편수가 1위에 오를 만큼 인도의 대표적인 공과대학 중 하나이다. 학기별 한국어 과정 제공, 해외대학과 공동연구, 해외 장·단기 프로그램 파견 등 국제화에 힘쓰고 있다.

협정을 위해 본교에 방문한 힌두스탄공과대학 국제처 관계자는 미디어 아울렛, International College 등 주례 캠퍼스를 둘러본 뒤 해운대 센텀캠퍼스로 이동해 소향뮤지컬시어터, 임권택 영화박물관 등을 견학했다.

우리 대학은 유학생의 비율이 7.8%로 타 대학에 비해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높다. 지난 18년 2학기에는 외국인 유학생 입교식을 가질 정도다. 당시 입학한 신입 유학생은 ▲학부 230명(일반·편입·복수학위 교환학생·교환학생) ▲석사 46명 ▲박사 26명 ▲연수 82명 등 총 384명이었다. 현재는 1만 367명의 재학생 가운데 818명이 외국인 학생이다.

지난 18년 외국인 유학생 입교식에서 장제국 총장은 "동서대는 한국에서 가장 국제화된 대학이다. 여러분은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이제 모두 동서 가족이다. 동서대에서의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대학도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이 국제화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해외에 캠퍼스를 유치하거나 유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한·중 합작대학을 설립하기도 했으며 3년 동안 중국에서 배우고 1년을 우리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학위를 받는 형식이다.

이유진 기자
youjin6244@gmail.com

# 동서학원 설립 56주년 및 개교 29주년 기념일

## 설립자 고(故) 민석 장성만 박사와 장제국 총장의 뜻을 기리며

▶ 설립자 故 민석(民石) 장성만(1932~2015) 박사의 동상

▶ 1970년 전문학교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 인가된 부산실업전문학교 현판식 장면. 故 민석(民石) 장성만(오른쪽)과 박동순 총장(왼쪽) 부부의 모습

*설립자 故 민석(民石) 장성만(1932~2015) -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는 기독교 정신 아래 머리로 배우는 지적교육, 가슴으로 느끼는 정적 교육, 손으로 일하는 의지적 교육을 실현하여 知(지)·情(정)·意(의)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인격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요, 그 부름(使命)에 응해서 발 벗고 나서는 자가 사명자인 것이다."*

우리 학교가 28일 개교기념일을 맞이한다. 올해로 개교한지 29주년이 됐다. 이와 동시에 동서학원 설립 56주년이 되는 해다. 일 년에 한 번 있는 중요한 날인만큼 우리는 동서가족으로써 우리 학교 역사와 연혁들을 알 필요가 있다. 또한 설립자 민석 장성만 박사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돌아보고 그 뜻을 기리는 깊은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우리 학교는 민석(民石) 장성만 박사 내외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하여 설립한 대학이다.

설립자인 민석 장성만 박사는 진리·창조·봉사 그리고 믿음·소망·사랑을 남기고 2015년 12월 6일 오전 11시, 주님 품으로 떠났다.

*동서대학교 총장 장제국(張濟國) - "동서대학교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로 국제화된 대학입니다. 우리대학의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들을 통해 매년 1,000여명의 학생들이 해외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 유수대학과의 공동학위수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세계의 젊은이들과 동서대학교 학생들이 마치 한 캠퍼스처럼 서로의 국가를 오가며 자유롭게 수업을 듣고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는 장제국 총장 아래 운영되고 있다.

장 총장은 동서대학교 교수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우리 학교 총장과 더불어 부산-후쿠오카포럼 간사, 한일차세대학술포럼 대표, 일본 간사이대학 객원교수, 한일포럼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1992년 개교한 우리 학교는 특성화, 정보화, 세계화 등 3대 전략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현재는 새로운 비전인 '혁신적인 미래형 대학'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준비하는 중이다. 이 비전을 바탕으로 최근 CK사업, LINC+사업 및 ACE+사업에 모두 선정됐다.

'대학특성화 CK사업 선정'으로 인해 우리 학교는 동남권 사립대학 중 최대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됐다. 또 '잘 가르치는 대학 ACE+사업 선정'을 받은 대학은 2017년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우리 학교가 유일하다.

이로써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미래형 대학의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장제국 총장은 "동서대학교는 혁신적인 미래형 교육과 국제화역량 강화 및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낙오자 없는 교육'을 통해 학생 여러분들의 '멋진 미래(Bright Future)'를 함께 만들어 가는 기회의 통로가 되겠습니다."라며 "세계의 대학과 경쟁하는 동서대학교는 세계 진출의 뜻을 지닌 진취적인 젊은이들에게 최적의 대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바로 동서대학교에서 실현될 것임을 확신하며, 시대를 개척하는 도전의식과 꿈이 있는 젊은이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 학교 개교

1992년에는 진리, 창조, 봉사를 교훈으로 하는 4년제 대학인 동서공과대학(현 동서대학교)을 개교했고 8개학과, 400명이 입학했다. 장성만 총장은 '작은 大學 큰 改革'을 21세기형 대학 모델의 기초로 삼아 '세계화'·'특성화'·'정보화'라는 「교육개혁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정보교육'·'산학협동교육'·'인성교육'을 4대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교육내용'·'행정제도'·'평가제도'·'연구제도' 등 5개 교육개혁을 단행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촉진시켰다. 이것이 동서대를 세계화 대열에 올려놓은 지렛대가 됐다. 개교당시의 허허벌판이었던 동서대는 세계로 도약하는 21세기형 글로벌 캠퍼스로 변했고, 많은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찾아오는 '신 명문(新名門)'으로 기반을 굳혔다.

### 기독교 정신의 구현

학교법인 동서학원은 1965년 민석 장성만 박사가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설립했다. 건학이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과 학교생활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학생들의 인격을 완성하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에 있다.

먼저 우리 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인격을 갖춘 참된 지도자를 양성함에 목적을 둔다.

다음으로 첨단 과학발전에 부응하고 산업사회의 주역이 될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힘쓴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사고와 창조적인 지식을 연마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의의를 둔다.

### 학교의 교훈

우리 학교는 세 가지 교훈이 있다. 첫째는 진리(眞理) - 기독교의 진리를 인격의 터전으로 삼는 교육, 둘째는 창조(創造) - 창조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 셋째는 봉사(奉仕) - 배운 바를 하나님과 인류를 위하여 봉사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다.

### 창조적 인재 양성 위한 목적

교육목적은 학칙 제 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교수하며, 산학협동으로 국가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전인교육을 통해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교의 상징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교화는 철쭉이다. 이는 봄이면 아지랑이가 너울대는 산기슭이나 구렁을 온통 붉게 물들이는 특성을 인용하여 우리대학의 발전과 풍요로운 미래를 상징한다.

대표 상징동물은 독수리다. 이 동물의 특징은 높은 곳을 힘차게 비상하여 날카로운 눈으로 원거리를 내다보는 것이다. 미래를 향해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동서인의 기상을 이 동물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민석 장성만 박사는 경남정보대학(1965년 개교), 동서대학교(1992년 개교), 부산디지털대학교(2002년 개교), 이렇게 3개 대학을 세워 그 동안 10만에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약 2만 명의 재학생과 1천명의 교수, 직원이 재직하는 큰 교육기관으로 키워냈다.

장성만 박사는 1961년 오사카 성서신학교 졸업하고 1964년 미국 신시내티신학대학원 수료, 1975년 미국 미드웨스트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일본과 미국유학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 미국이 철저한 기술자를 중심으로 한 산업 사회인 것을 통감한 설립자는 한국이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기능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어 미국 20개주(州) 50여개 교회를 돌면서 강연과 설교를 한 결과 많은 동지를 얻어 재미후원회(재미재단 이사회의 전신)를 조직하여 은사인 래쉬 선교사와 함께 1965년 2월 1일 동서학원을 설립하고 경남정보대학교의 전신인 영남기독실업학교를 개교했다.

### '정계의 달란트' 충실히 감당

장성만 박사는 1981년 3월 부산 북구에서 제1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제12대 총선에서도 여당 출신으로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1등으로 당선돼 1985년 당 정책위의장, 1987년 국회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탁월한 정치 역량을 보였다. '부지런한 정치인'으로 통한 장성만 박사는 정계 활동 당시 의료보험제 전면 실시, 최저임금제 실시, 서민을 위한 7대 복지정책 개발 등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를 했다.

### 기독교 사랑의 사회적 실천

2005년 12월 부산지역 목사·장로들과 뜻을 합해 '크리스천 21세기 포럼'을 창립하고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장성만 박사는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들에게 피랍됐던 마부노호 어부 석방을 위한 모금운동에도 팔을 걷고 나섰다. 2007년 11월에는 사재 1억 원을 출연해 미성년 가장(중고생) 100명에게 장학금 100만원씩을 전달하기도 했다.

2008년 동서학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21세기 포럼 문화재단 설립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인재를 위한 장학 사업에 주력했다.

### 열정적 문필활동

1950년대 부산기독교문인 협회를 결성하여 초대 회장을 지내면서, '기독교문예', '아가페', '로고스' 등 월간지를 발행했다. 매일 2시간씩 집필, 총 25권의 책을 출판했다. 이 가운데 '디지털 사회를 사는 지혜'란 제목의 에세이집은 중국어로 출판돼 중국교육부에서 선정한 우수 교양서적 100권에 포함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1977년 부산시 문화상을 수상했고 1978년 대통령 표창(교육공로), 2007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저서로는 [약속의 땅] [예수님 때문에] [일흔일곱 가지의 지혜] [좋은 습관 좋은 인생] [지도자의 길] [발상이 힘이다] [디지털 사회를 사는 지혜] [플러스 파워] 등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 50년의 결실을 남기고 소천

지난 50년간 땀과 눈물로 일구어놓은 동서학원을 후세들에게 남겨놓고 주님의 품으로 떠났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동서학원 설립자 장성만 박사는 돌 하나 나무 하나에도 설립자의 애정이 짙게 배여 있는 동서학원 캠퍼스를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동서가족들과 작별을 했다.

장성만 박사는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가장 좋아했다.

장제국 총장은 "많은 분들이 설립자님은 강한 분이라고 여기지만 실은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다. 늘 검소하게 생활했다.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저에게 '나는 물이고 너는 농부다.'라고 하셨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다. 설립자님이 기초를 닦아놓았으니 농부의 마음으로 밭을 잘 일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설립자님이 세워놓은 3개 대학을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나경훈 기자
nkh0301@gmail.com

▶ 동서대학교 상징동물 - '독수리'

▶ 동서대학교 교화 - '철쭉'

## 지난 4년간 동서대학교 연혁

▶ 2017년 9월 러시아 국립대 세종학당 개소

▶ 2019년 9대 장제국 총장 취임

**2017년**

03. 08 민석교양대학 오픈
03. 10 동서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우수' 평가
04. 18 부산국제연극제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04. 19 해외취업지원사업 K-Move 스쿨 6개 과정 선정
04. 19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사업 선정
05. 01 "잘 가르치는 대학" ACE+사업 선정
06. 08 러시아 세종학당 신규 설립 인가(문화체육관광부 발표)
06. 23 보건의료계열 간호학과 BLS 센터·KALS 센터 개소
07. 21 인도네시아 Soegijapranata Catholic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
07. 21 '고객만족 &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 공학교육혁신센터 선정
07. 31 2017년 국제 건축학교육인증 최고등급 획득(건축설계학전공)
09. 25 러시아 아스트라한 국립대에서 러시아 세종학당 개소
10. 23 고용노동부 주관 IPP '일·학습병행제 운영대학'에 선정
11. 01 관광학부 '관광·MICE 센텀산업단지' 사업 선정

**2018년**

04. 18 2018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우수등급 선정(소프트웨어 분야, 정보통신분야)
05. 24 K-Move스쿨 6개 과정 선정
10. 04 중국 연경이공대학과 협력교류협정 체결
10. 13 제3회 부산 - 상하이 협력포럼 개최(동서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주최)
10. 26 韓中합작대학 한중뉴미디어학원 10주년 행사
10. 30 한·일 대학생 공동세미나(동서대 - 시즈오카현립대)
10. 30 인도네시아 텔콤대(Telkom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
11. 26 2018 대학 취업·창업 역량 평가 1위(부산·울산·경남 권역 대학 중)

**2019년**

03. 20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 선정
03. 20 2019 아프리카 중남미 대학생 초청연수 사업 선정
03. 29 2019년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주관)
04. 01 2019년 부산전략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국제물류학전공)
04. 08 2019 K-Move스쿨 3개 과정 선정(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04. 08 '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 선정(부산광역시 주관)
04. 08 2019년 부산시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04. 18 디지털콘텐츠학부 - 2019 청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선정(부산시 주관)
04. 24 2019년 대학일자리센터 운영기관 선정(고용노동부 주관)
04. 25 광고홍보학과 - 산업계관점대학평가 최우수 등급(교육부)
04. 29 2019 평생교육지원사업 선정(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05. 02 대학혁신지원사업 최종선정(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주관)
09. 26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 선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10. 16 학생통합지원서비스 Solution Desk 개소
11. 19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출범
12. 11 2019 청년드림대학 선정(동아일보·고용부·마크로밀엠브레인)
12. 17 2019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상 수상(고용노동부와 동아일보, 한국고용정보원)
12. 23 부산시 평생교육 발전과 평생교육체제 지원 위한 협약 체결(동서대 - 부산시 - 부산인재평생교육원 - 동남권 4개 대학)

**2020년**

02. 11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해양수산부 선정)
02. 17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대학 선정(교육부·법무부 주관)
03. 02 2020 K-Move스쿨 6개 과정 선정(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선정)
03. 17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선정(중소벤처기업부 주관)
04. 20 2020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선정(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04. 23 2020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선정(중소벤처기업부 주관)
04. 29 방송영상학과 - 산업계관점대학평가 최우수 등급(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06. 11 미국 세종학당 설립인가(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주관)
10. 21 동서대 - Coursera, 해외명문 대학강의 콘텐츠 제공 협약 체결
10. 29 동서대 등 6개 大, 부산시와 공유대학플랫폼 구축 협약

# 야, 나도 취업할 수 있어!

## 취업을 향한 계단

▶대학일자리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실내 사진

우리 대학교는 매년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률 65%를 기록으로 부산·울산·경남 4년제 대학 중에서 다수 1위를 차지했다. 전국적인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대학교만의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이는 모두 학생 취업지원처(대학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한다. 취업지원센터란 우리 대학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취업 컨트롤타워다. 기본적으로 취업지원센터는 국내취업지원팀과 해외취업지원팀으로 나누어 학생들의 국내외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취업의 대표적인 사업은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사업"과 부산시 "대학생 취업역량강화지원사업"이 있으며 해외취업의 대표적인 사업은 고용노동부 "K-Move스쿨"이 있다. 또한 학생 취업지원처에서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통해 성차별적인 취업 현실, 경력단절 문제 등 여성이 갖는 취업 구조적 장애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중장기적인 경제활동을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재학생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취업 프로그램으로는 직접 신청하여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개설된 ▲비교과 프로그램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현장실습지원 프로그램 ▲IPP형 일 학습 병행 프로그램들이 있다.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시기에 맞춰 지원하여 들을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7가지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5월부터 그다음 해 7월까지 운영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취업클리닉(LINC) ▲기업 인사팀장 특강 ▲직무자격증 교육 ▲직무 박람회 ▲기업 초청 간담회 ▲인사부서장 워크숍 ▲취업동아리 등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직군에 대한 채용정보를 모색한다.

###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우리 대학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도 할 수 있는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해외와의 넓은 교류를 통해 지원해 준다. 해외취업지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K-Move스쿨이 있다. 이는 다양한 나라에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 취업지원처에서 운영하는 K-Move 프로그램에 선정된 학생은 8개월간 국내외에서 직무, 어학, 필수, 소양 교육을 받고, 해외에서 1년간 인턴 생활을 거친 뒤 현지 기업 취업 혹은 국내에 있는 관련 기업에 취업한다. 선발된 학생은 국내외 교육비 전액, 교재비, 시험 응시료, 비자 수속비 일부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인 최대 580만 원(단기과정) 또는 800만 원 상당의 지원으로 글로벌한 취업을 연계하도록 추진한다.

### 현장실습지원 프로그램

현장실습지원 프로그램은 학생 취업지원처에 있는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이는 재학생들이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직무체험을 하고 미래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학정책 현장실습 ▲단기 현장실습 ▲중기 현장실습 ▲장기 현장실습으로 다양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현장실습은 각각 하계, 동계 계절 학기를 거쳐 최소 32시간 이수부터 최대 450시간(15주)의 이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3, 4학년 재학생 중 중소, 중견기업 취업희망자들에게는 등록금 전액 및 취업 준비 장려금 200만 원(학기당) 상당의 학비가 지원된다.

### IPP형일학습병행사업단

IPP형일학습병행사업단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교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 공단의 지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 기업 연계형 장기현장실습)와 NCS 기반 L5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취업연계형 일학습병행으로 나뉜다.

먼저 기업 연계형 장기현장실습은 현장을 직접 실습하며 단기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학기 중 4개월간 기업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최저 임금 이상의 실습비를 지원받으며 전공 12학점을 인정받도록 한다.

취업연계형 일학습병행으로는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학생을 학습 근로자로 채용하고, 학교와 함께 산업체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교육 모델로, 기업과 함께 성장할 차별화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조은빛 기자
dmsqlc111@gmail.com

■ 학과별 Q&A 인터뷰 – 사회안전학과 김용호 책임교수

##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안전학과

**Q.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안전학과 책임교수를 맡고 있는 김용호입니다.

**Q. 사회안전학과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사회안전학과는 미래커리어대학에 소속된 단과 학과입니다. 사회안전학과는 탐정 트랙, 산업보안과 관련 있는 사이버 탐정 트랙,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산업안전 트랙으로 나뉩니다. 학생들이 모든 트랙의 수업을 듣기 때문에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Q. 사회안전학과만의 특별한 점이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학생들의 실무적인 경험치가 아주 높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 해양경찰관, 보험회사에서 보험 수사 등 학생들이 모두 다 직장 생활을 경험했거나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안전학과 학생들이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에게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주는 재능기부활동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학과가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Q. 사회안전학과와 관련된 자격증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사회안전학과는 공공분야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논하기보다는 공무원이 되는 것과 같은 공익적인 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이버 탐정은 디지털 포렌식 관련 자격증이 있지만, 탐정은 공인 자격증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게끔 하여 국가 자격증에 준하는 경비 지도사, 일반 경비원 자격증 등을 공부하도록 하는 방향은 있습니다. 민간영역에 탐정과 관련된 자격증으로 28개가 있지만, 어떤 자격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기보다 저희 학교의 수료증을 취득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Q. 이 학과의 진로와 전망은 어떤가요?**

A. 자신이 창업을 하여 탐정을 하거나, 변호사 사무실, 기업의 법무팀, 보험조사원, 경비지도사 등으로 취업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통한 경찰, 해양경찰 등의 길도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보안업체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프로그램의 기술 숙련도가 뛰어나시고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우리 사회, 그리고 산업체 안에서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항상 있습니다. 사회안전학과는 이러한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탐정의 업무는 보통 생각하시는 뒷조사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제표 파악, 기업 내부 비리 조사 등도 포함됩니다. 한국에선 아직 탐정 시장이 많이 개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요즘에 사회안전학과에 이슈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아직 탐정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탐정의 활동 근거가 생기고,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법이 제정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있는 모바일 포렌식 연구소와 탐정 영역을 결합하면 사이버 탐정 영역이 아주 확대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이 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희 학과는 만들어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한 불확실함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우리 사회안전학과 학생들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밝지 않은 길이지만 끝내 찬란한 곳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안전학과는 그 밝은 장소까지 학생들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길을 같이 가실 분들은 제 뒤를 따라와 주십시오.

오형지 수습기자

# 예비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정책

## 교내 창업 프로그램 꼼꼼 분석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

▶창업 교육 프로그램 행사

격동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국가는 더욱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창업 모델을 요구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은 성공적 창업을 위행 각종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해 준다. 창업지원단이란 경제를 선도하는 창업 전진기지로서 Easy Startup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동남권 지역 창업 벨리화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의 창업교육은 '티움-키움-피움'으로 나눠 단계별 교육으로 진행된다. 창업의 단계에 따라 ▲(싹을)티움 ▲(줄기를)키움 ▲(꽃을)피움 등으로 구분하며, 한 송이 꽃을 피우는 과정과 같이 창업의 꽃을 피워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상세 프로그램으로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업지원공간과 창업 동아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창업교육 프로그램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창업 정규 교과목과 창업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창업 정규 교과목으로는 교내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는 실전 창업 프로젝트, 스타트업 인턴십의 교육을 통해 실천 창업을 위한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비교과 프로그램으로는 정규 교과목보다는 좀 더 세분화된 과정을 배운다. 초기 창업 패키지 선정기업이나 유관기관 창업 실무자, 혹은 전국 고등학생, 대학생(재학생 포함) 등 13개의 프로그램 중 지원 대상에 맞게 지원하여 전문적인 자문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한다.

### 창업지원공간

창업공간 중 하나인 창업보육센터 D.E.V는 Dream Engineering Valley의 약자로,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같이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모여 거대한 집적 기술의 산업화 단지를 이루기 위해 개소한 센터다. 주요 지원분야는 디자인·IT이며, 벤처기업의 연구 및 사업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공간과 소프트웨어 및 공동기자재를 구비하여 입주 기업들에게 최상의 기업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실험실 창업 이노베이터 육성 사업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을 통해 학생·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구현·공유할 수 있는 창작 활동 공간을 구축하고자 한다.

창업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예비 창업자라면 각종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이나 투자유치 지원을 통해 자금 최대 1억 원으로 창업 교육을 들을 수 있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과 실험실 창업 이노베이터 육성 사업은 연구성과와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집약형 창업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연구 개발 및 학생 수당이나 투자 지원을 받으며 ▲연구원의 실험실 창업 지원 업무(BM 설계, 시장 분석·검증 등) ▲창업교육과 연계한 실전창업 ▲프로젝트 벤처 버라이어티(IR 콘테스트, 아이디어 캠프 등)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창업동아리 발굴 육성, 기술 창업 육성캠프 개최, LAB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실험실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한다.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은 창업에 대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구현·공유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메이커 교육 및 각종 창업 경진대회, Art 마켓 운영, 각종 커뮤니티 기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함으로써 메이커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자들에게 체험 활동을 제공한다.

창업지원단의 지원은 학교에서 멈추지 않는다. 학교에서 구성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내 창업유관기관과 연계한 'LEGO창업아카데미' 등으로, 지역의 초기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창업교육패키지를 구성한다. 더불어 '청년CEO창업포럼'으로 시제품을 제작해보고, 실제 창업자들과 소통하며 창업에 대해 자연스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창업지원단에 대한 상세 정보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은빛 기자
dmsqlc111@gmail.com

# 취준생들 주목! 도움 되는 자격증

## 자격증으로 스펙 쌓기

취업에 중점을 둬야 하는 지금, 자격증은 스펙에서 중요한 역할이 됐다. 그러나 자격증이라고 모두 유리한 것이 아니기에 희망하는 직종에 맞는 자격증을 준비해야 한다. 원하는 직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선호한다고 명시해놓은 주요 자격증들을 유심히 봐야 한다고 하는데, 직종별 유용한 자격증을 소개하고자 한다.

▶취업 관련 사진 ▷사진출처 – 픽사베이

### IT 직종

21세기에 들어서면서 IT 직종은 빠르게 부상함에 따라 IT 자격증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따라 IT업계에서 일하고 싶은 비전공자라면 특히 관련 자격증을 반드시 다 두어야 한다. 먼저 전산회계운용사, 정보보안기사 등 국내 자격증들뿐 아니라 OCP, OCJP, CCNA 등 국제자격증들도 종류가 다양하다.

부가적으로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과 컴퓨터 자격증 GTO, ITQ이다. 이는 인정 기간이 취득일을 기준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해킹 등 사이버상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 보안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서다.

### 금융업종

금융업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다. 하지만 취업 준비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만큼, 금융업종에 대한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중이다. 따라 금융업종에 취업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격증을 따 놓으면 유리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격증으로는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펀드 투자상담사가 있다. 이는 금융업종에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며, 이외에도 투자자산운용사, 금융 투자분석사, 신용분석사 등 금융권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들이 있다.

한편 국제 금융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AICPA(미국 공인회계사), CFA(국제 재무분석사), CTP(국제공인재무전문가)를 꼽는다. 국내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해외취업으로 눈길을 돌리는 구직자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한 길이 될 수 있다.

### 제조업종

제조업종의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을 희망한다면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도움 된다. 국가 기술 자격증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습득 정도를 평가해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증명하는 제도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응시자들로부터 가장 인기가 많은 자격증은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 위생 등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까지 고려하는 추세가 되면서 산업현장을 관리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격증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 전문 직종

전문 직종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의 종류를 일컫는데, 먼 미래까지도 한 직종에 오래 일하고 싶다면 국가전문자격증이 필요하다. 주로 정부부처에서 시험을 주관하여 응시조건이 까다롭고 어려운 편이며 ▲감정평가사 ▲법무사 ▲관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또한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등을 희망한다면 특히 유용하다.

자료출처 : 이코노믹리뷰
조은빛 기자
dmsqlc111@gmail.com

책 속의 풍경 - 이상한 정상 가족

# 가족주의가 만든 가족의 문제

- **책 제목 :** 이상한 정상 가족
- **책 저자 :** 김희경
- **출 판 사 :** 동아시아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사랑도 있지만 고통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의 문제는 정부의 무책임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아동의 인권을 둘러싼 부모, 가족, 국가의 문제점을 다룬 책이다.

이 책은 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을 구분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바라보는 부모의 잘못된 생각, 가족주의를 부추기며 적극적인 지원은 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성, 그리고 그로 인해 가족 안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의 현실을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정상가족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져 있는 가부장적인 핵가족이다. 그리고 비정상 가족은 핵가족 외에 미혼모 가정, 다문화가정 등을 가리킨다. 한국 사회는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인 근대화를 거치며 경제성장을 위해 복지예산을 줄였다. 그래서 복지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했다. 가족의 삶이 양극화됨에 따라 중산층의 아이들은 입시 경쟁에 내몰려 개별성과 자율성을 잃게 되었고,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돌봄 공백이 생기는 등 방치되었다. 이처럼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지 않았고 모든 것은 가족이 많은 책임을 떠안고 스스로 살아남도록 하였다. 결국 가족 내의 가장 연약한 아이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게 되었다.

책에서는 학대의 유형으로 과보호와 방임을 예로 들고 있다. 과보호의 예시로 너무나 많은 학원 수,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부모와 그런 부모로 인해 우울감에 빠지는 자녀들이 있다. 방임 문제는 장기 결석하는 아이들의 문제를 보여준다. 저자는 부모가 자식을 하나의 권리의 주체로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학대가 발생한다고 본다.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잘못 쓰이고 있는 단어가 있다. 바로 일가족 동반자살이다. 동반자살은 본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단어는 부모가 자식의 목숨을 끊고 나서 뒤이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경우를 두고 동반자살이라 잘못 사용하고 있다. 부모는 남겨진 자녀가 걱정되어 함께 죽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자는 이를 두고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살인이지 동반 자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부모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부모의 권리가 되어가고 있다. 심지어 친권이 너무도 강하여 도리어 그것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비정상 가족이라 불리는 미혼모 가정, 입양가정,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이러한 가족들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사람들은 미혼모 가정을 비정상이라고 바라본다. 혼외출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들을 정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정상가족 범위 바깥에 존재하는 비정상 가족이라고 본다. 정부에서는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해 가족주의를 부추겼고, 그로 인해 우리가 아닌, 정상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배타주의가 심화되었다. 그로 인해 정상이 아니라고 간주되는 사람들은 많은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들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 이 문장은 책에서 소개한 넬슨 만델라의 글귀이다. 이 문장을 읽으며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지만, 더욱 중요한 인간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비정상 가족이라 불리는 미혼모, 입양아동,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아픔을 알 수 있었다. 우리의 잘못된 시선을 바꾸어야 함을 배웠다. 이러한 잘못된 현상을 만드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아동의 인권과 가족의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에서 가족주의를 부추겨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공동체 외의 다른 공동체에 배타적인 마음을 갖게 됨을 배웠다. 나도 책 속에서 말한 것처럼 정상가족과 비정상 가족을 무의식적으로 구분하고 내가 속하지 않은 타 공동체에 배타적인 사람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잘못된 것임을 배웠고 반성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상가족과 비정상 가족이라는 잘못된 틀을 만들어 그곳에 아이들도 우리도 가두지 않아야 한다. 잘못된 틀을 벗어던지고 아동의 자율성과 개별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오형지 수습기자

이달의 영화 - 릴리 슈슈의 모든 것

# 인간의 가장 큰 마음의 상처, 존재

- **영화 제목 :** 릴리 슈슈의 모든 것
- **영화 감독 :** 이와이 슌지

영화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은 2001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로 감독 이와이 슌지가 집필한 소설을 원작으로 감독했다. 이 영화는 학교폭력과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가수 '릴리 슈슈'의 노래를 너무나 사랑하는 열네 살 소년 유이치에 대한 이야기다. 이와이 슌지는 <러브레터>, <쏘아 올린 불꽃,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 <립 반 윙클의 신부> 등 다양한 영화를 연출해 많은 호평을 받은 감독이다. 이와이 슌지의 작품은 밝은 분위기와 어두운 분위기로 분류되는데, 지금부터 소개할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은 어두운 분위기의 영화다.

영화는 가수 릴리 슈슈의 팬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남긴 댓글을 보여주며 시작한다. 곧바로 등장하는 세 소년은 지하철에서 잠든 노인의 가방을 훔치고 음반 매장에서 각종 앨범들을 훔쳐 달아난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영화의 주인공 유이치다. 그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다. 그를 괴롭히는 무리의 중심에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호시노'가 있었고, 물건을 같이 훔친 다른 두 소년 또한 유이치를 괴롭히는 무리에 속해있다. 그들은 유이치가 가진 돈을 빼앗기도 하고 밖으로 불러내 폭행을 가하는 등 끔찍한 행동을 한다.

과거 유이치는 같은 반이자 신입생 대표인 '모범생' 호시노와 같은 검도부에 들게 되며 친해지게 된다. 유이치는 호시노의 집에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호시노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오키나와를 여행하며 여름방학을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새 학기가 시작되자 호시노는 동급생과 유이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또한 같은 반 여학생 '츠다'에게 원조교제를 강요하고 돈을 가로챈다. 요이치는 츠다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녀의 얘기를 들어주고, 릴리 슈슈를 소개한다. 어느 날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연을 보며 요이치에게 자신도 날고 싶다며 환하게 웃던 츠다는 자유를 찾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리고 유이치에게 릴리 슈슈를 알려준, 유이치의 첫사랑 '쿠노'는 호시노 무리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삭발을 한 채 등교한다.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유이치는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래로 자신을 위로하지만, 점점 릴리 슈슈에게 집착하기 시작한다.

유이치는 호시노가 변한 시점인 오키나와 여행을 중심으로 전과 후를 다르게 나눈다. 그 후는 '잿빛 시대'라고 표현한다. 잿빛 시대에 살고 있는 유이치에게도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릴리슈슈의 팬클럽에서 유이치와 생각이 잘 맞는 '푸른 고양이'라는 닉네임의 유저다. 유이치는 푸른 고양이에게 많은 위로를 받으며 현실을 살아간다. 어느 날 유이치는 릴리 슈슈의 콘서트에서 푸른 고양이와 만나기로 약속한다. 푸른 고양이는 자신의 정표인 푸른 사과로 자신을 알아보라고 했다. 콘서트에 간 유이치는 또 호시노를 마주치고 만다. 그의 손에는 푸른 사과가 들려있었다. 호시노는 유이치가 자신과 팬클럽에서 대화하던 사람인 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 유이치는 자신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과, 자신을 위로해 줬던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호시노에게 강제로 표까지 빼앗긴 유이치는 콘서트가 끝날 때까지 콘서트장 밖에서 반복 재생되는 릴리 슈슈의 영상을 보며 멍하니 서있는다. 콘서트가 끝난 후 밖으로 나오는 호시노를 칼로 찌르고 후에 푸른 사과에 꽂힌 칼을 보고 호시노가 죽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쿠노와 그런 쿠노를 바라보는 유이치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난다.

페이크 다큐 같은 느낌을 주는 촬영 방식과 빠르지 않은 컷 변화와 구도들, 배우들의 미숙한 연기, 그리고 영화의 흐름대로 호흡하는 릴리 슈슈의 음악은 영화에 몰입하기 충분하다. 그리고 아름다운 영상미가 영화를 더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이와이 슌지는 시나리오를 위해 '릴리 슈슈'라는 가상 가수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그녀의 정보, 사건 등을 게시판에 올리고 감독 스스로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댓글 하나하나를 기획했다. 이후 사이트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독자들도 참여하게 됐고, 게시판은 독자가 참여하는 한편의 '연극'처럼 완성됐다. 이와이 슌지는 유작을 고르라면 이 작품을 고르고 싶다고 할 만큼 릴리 슈슈의 모든 것에 많은 애정을 보였다.

조수연 수습기자

# 가족을 위협하는 식품 안전

##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식중독으로 고통받는 모습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날이 찾아오면서 식품위생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특히, 가정의 달에는 가족 간의 모임과 식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식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식품안전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

### 일상 속 위험, 식중독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에 연관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 발생되었거나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염'이라는 말은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며 대부분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고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식중독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흔히 발생하는 식중독은 다음과 같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동물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로 닭과 같은 가금류가 가장 흔한 감염원이다. 살모넬라균은 열에 취약하여 저온 살균으로 사멸되지만 음식 조리 과정에서 다른 식품에 대한 이차 오염이 문제가 된다. 살모넬라균은 가열에는 약하지만 냉동 및 건조 상태에 사멸되지 않아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겨울에는 발생 빈도가 낮다. ▲포도상 구균 식중독은 살모넬라 및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다음으로 흔히 발생하고 황색 포도상 구균이 생산하는 외독소가 식중독의 원인이다. 포도상구균은 넓은 범위의 온도에서 증식이 가능해서 조리한 음식물을 실온에 보관하는 경우 발생하기 쉽고, 소풍이나 야유회 혹은 잔칫집에서 음식물을 섭취 후 흔히 발생한다. 포도상구균에 의해 생산된 독소는 높은 온도에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고 2~4시간 후에 구토와 복통 증상이 나타난다. ▲비브리오균 식중독은 비브리오균은 바닷물과 갯벌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패류가 가장 흔한 오염원이고 생선이나 조개의 껍질, 내장, 아가미 등에 존재하여 조리 과정에서 회를 오염시키고 냉장고, 도마, 행주, 칼 및 조리자의 손을 통해 다른 식품에 이차적 오염을 유발한다. 여름철에 어패류나 해산물을 날로 먹은 후 발생하고, 섭취 후 12~24시간에 복통과 심한 설사를 유발한다. 비브리오균 식중독은 3일 정도 증상이 지속된 후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따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대장균성 식중독은 대부분의 대장균은 인간에게 무해하지만 일부 대장균은 병원성이 있다. 병원성 대장균 중 내독소 생성 대장균은 여행자에게 자주 일어나는 여행자 설사의 원인균으로 설사, 장염을 일으킨다.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발병 후 단기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주 오염원은 덜 익힌 육류나 오염된 우유 등이며 대부분의 병원성 대장균이 열에는 약하기 때문에, 음식을 익히거나 데워먹는 습관이 필요하다. ▲클로스트리디움 식중독은 공기가 없는 곳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혐기성 세균으로 열이나 소독약으로 파괴되지 않는 포자를 형성하고 다양한 종류의 독소를 분비한다. 식중독의 원인균에 따라 보툴리눔 식중독과 웰치균 식중독으로 구분한다. 보툴리눔 식중독은 보관 상태가 나쁜 통조림이나 소시지를 먹은 후에 발생하고 신경독소에 의해 마비 증상을 일으킨다. 웰치균에 의한 식중독은 다량의 음식을 제조하는 집단 급식시설에서 발생 위험이 높다. 웰치균 오염은 가축과 가금류가 도살장에서 해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쇠고기 닭고기가 가장 흔한 감염원이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크기가 매우 작고 구형인 바이러스로 주로 겨울철에 급성 위장관염을 일으키고 선진국에서 가장 흔한 겨울철 식중독의 원인균이다. 환자의 분변에 포함된 노로바이러스에 의해 오염된 식품과 물을 가열하지 않고 섭취할 경우 감염되고, 환자의 건조된 분비물(분변 또는 구토물)에 포함된 소량의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인간끼리 전파 감염되어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다. 감염 후 24~48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설사, 복통, 구토, 두통, 발열, 근육통 등 증상을 유발하고 3일 이내 자연 치유된다.

식중독에 대한 가정 내 응급처치는 음식 대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포도당이나 전해질이 포함된 물은 순수한 물에 비해 흡수가 더 빠르기 때문에 끓인 물에 설탕이나 소금을 타서 마시거나 시중의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세스코 안전수칙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에서는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온도 관리 ▲분리, 밀폐 ▲청결 유지 ▲기한 관리 4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위해서 냉장은 0~10℃, 냉동은 -18℃ 이하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냉기 순환을 위해 식재료 보관 용량은 70% 이하로 줄이고 상온 창고는 15~25℃, 습도 50~60% 정도로 맞춰야 한다. 두 번째 '분리, 밀폐'는 식품 간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재료별로 다른 용기에 따로 담고 밀폐한다. 식중독 주범인 해산물은 최대한 산소가 닿지 않게 밀봉해 냉동실에 보관하고 특히 생선은 내장을 제거한 뒤 보관해야 한다. 육류는 수분을 키친타월로 잘 닦은 뒤 진공 포장해 냉동 보관하고, 가열 없이 바로 먹는 채소는 달걀이나 고기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 원칙은 '청결 유지'다. 적어도 주 1회 이상 주방과 창고, 냉장고 등을 청소해야 한다. 배수구는 베이킹소다와 식초로 세척해야 하며 칼과 도마는 식중독 발생의 약 25%를 차지하는 조리기구로 식자재 종류를 바꿀 때마다 다른 칼과 도마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난류나 육류를 만진 뒤에는 항상 비누나 세정제로 씻어야 한다. 마지막은 '품질, 기한 관리'로 유통기한이 짧은 것부터 먼저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식재료를 점검해 유통기한이 지나진 않았는지, 변질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 식품안전을 위한 국가인증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부는 식품위생법을 제정하고 각종 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던 인증제도 마크를 하나로 단일화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했고 우리는 이를 활용해 더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HACCP)은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다.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한 식품제조를 위한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은 생산에서 판매까지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인증제도다. 농산물 우수관리기준에 의해 생산, 관리되며,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에서 처리되고 농산물의 이력 추적관리 등록을 한 농산물에 부여한다.

더워지는 날씨 탓에 음식물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음식은 함께 먹은 모두가 고통받을 수도 있다. 올바른 음식물 보관과, 위생수칙을 알아두고 조심한다면 피해 입지 않고 즐거운 식사시간을 보내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식중독
[네이버 지식백과] - 식품라벨 구성요소

김경은 기자
ymacom10@gmail.com

## 축 제 · 공 연 소 식

### 제7회 부산성악가페스티벌 -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기행 II Mo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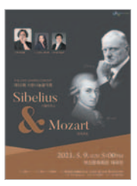
- **기간 :** 2021.05.13(목)
- **장소 :**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 **주최 :** 금정문화회관 솔오페라단

### 해운대 모래작품 전시회

- **기간 :** ~2021.05.09.(일)
- **장소 :** 해운대 해수욕장
- **주최 :** 해운대구

### 부산원도심골목길축제

- **기간 :** ~2021.05.23.(일)
- **장소 :** 부산 원도심 4개구 일원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 **주최 :** 부산광역시




### 제50회 UKO오케스트라 사랑나눔음악회

- **기간 :** 2021.05.09.(일)
-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UKO 오케스트라

### 스승의 날 기념 코리아첼버브라스 콘서트 - 부산

- **기간 :** 2021.05.15.(토)
-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

### 프랑스 오리지널팀 내한 콘서트 레미제라블 - 부산

- **기간 :** ~2021.05.16.(일)
- **장소 :** 부산 KBS홀
- **주최 :** (주)KBES

### 스냅 SNAP

- **기간 :** 2021.05.20.(목)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 가정의 달, 선물로 전하는 고마움

## 기념일 별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

▶어버이날 선물 아이템, 마미북과 대디북 ▷사진 출처 – 예스24

▶어버이날 선물 아이템, 감사패 ▷사진 출처 – 네이버 쇼핑[청춘 송금 상패]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의 기념일이 몰려 있는 5월을 이르는 말이다. 평소에 쑥스러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면 이번 5월에는 고마운 사람에게 선물을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보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선물을 해야 좋을지 고민이 된다면 이 글을 통해 그 힌트를 얻어보는 건 어떨까?

### # 5월 5일 어린이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가족 중 동생이 있거나, 자녀가 있다면 이 선물을 참고해보자.

어린이날에 추천하는 선물 아이템으로 '아동용 킥보드'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컴퓨터, 휴대폰을 보는 아이들에게 아동용 킥보드를 선물함으로써 이번 어린이날에 함께 운동장에 나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컴퓨터와 휴대폰에 빠져있는 아이들은 다른 활동을 원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하지만 킥보드라는 흥미 있는 것을 제안하면 아이들도 선뜻 따라나설 것이다. 성장기의 아이에게 즐거운 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발달에 도움도 되고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날 선물로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것은 샌드아트이다. 샌드아트는 모래와 빛을 이용하여 그림과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LED 그림판 위에서 모래를 뿌리거나 지우며 손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아이들은 샌드아트를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모래를 만지며 이미지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 발달과 심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밖에 나가기 어렵고, 신선한 놀이를 원한다면 샌드아트 선물을 추천한다.

### # 5월 8일 어버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다. 평소에 쑥스러워 부모님께 감사함을 잘 표현하지 못한 동서대 학우들이 있을 것이다. 이번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해보자.

선물 아이템으로 '마미북'과 '대디북'이 있다. 가수 아이유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대디북과 마미북의 일부를 업로드하며 많은 화제가 된 책이다.

이 책은 부모님께 드리는 질문 200가지가 적혀있고 부모님이 답변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있다. 부모님이 답변하신 글을 읽어보며 자녀는 부모님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힐 수 있다. 책의 질문으로는 '아빠는 어른이 되면 어떻게 살고 싶었나요?', '아빠가 20대에 해본 것 중 저도 해보았으면 하는 경험은?', '엄마와 제가 가장 잘 통한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20대 때 엄마는 어떤 취미를 갖고 있었나요?' 등이 있다.

부모님은 자기 자신을 알아갈 수 있고, 자녀는 부모님에 대해 몰랐던 것을 알아갈 수 있다. 말로 먼저 꺼내기에는 쑥스러운 내용들을 부모님의 글쓰기를 통해 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의 답변을 다시 읽어보고 그 내용에 관해 질문하며 대화를 할 수 있다. 글쓰기는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마음을 글로 정리함으로써 알게 해 주는 힘이 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번 5월에 부모님께 마미북과 대디북을 선물해드린다면 부모님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어버이날 아이템으로 추천하고 싶은 또 하나는 '감사패'이다. 그동안 부모님께 전하고 싶었지만 전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감사패의 글귀로 전하는 것이다. 부모님께서는 자식에게 생각지 못했던 상을 받게 되어 좋고 더욱이 그 내용에 자식의 감사한 마음도 담겨있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는 액자, 화분, 머그컵 등에 '엄마 사랑해요'와 같은 문구를 넣는 아이템도 있다.

이외에도 어버이날 용기 내어 전화 한 통을 먼저 걸어 감사함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껜 기억에 남을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다.

### # 5월 15일 스승의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학창 시절 나를 변화시켜주셨던 선생님, 나를 믿고 지지해 주신 선생님, 대학교에서 만나게 된 교수님들, 이 외에도 나에게 배움을 주었던 인생의 스승님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여 성장시켜준 이들이 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함을 전해보자.

스승의 날에 추천하고 선물 아이템으로 '맞춤 정장 교환권'이 있다. 수업과 같은 공적인 자리에 설 일이 많은 선생님, 교수님께 안성맞춤인 선물이다.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가 어느덧 어엿한 성인이 되어 선물을 주고 맞춰 입게 되는 맞춤 정장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맞춤 정장 교환권이 가격 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은 '건강식품'이다. 보통 선생님, 교수님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식품을 선물로 드린다면, 제자가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여 선물을 준다는 사실에 많이 기뻐하실 것이다.

### # 5월 17일 성년의날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다. 올해는 5월 17일이 성년의 날이다. 이 날은 인생에 딱 한 번뿐인 날이다. 인생의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특별한 날인만큼 특별하게 파란 장미를 선물할 것을 추천한다. 파란 장미의 꽃말은 불가능이다. 이는 파란 장미가 만들어진 배경과 관련 있다. 장미는 파란 색소인 '델피니딘(Delphinidin)'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파란 장미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델피니딘이 생성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파란 색소를 만드는 효소인 '플라보노이드 3(Flavonoids 3)'과 '히드록시라아제 5(Hydroxylase 5)'가 있어야 한다. 둘째, 액포의 산도가 6에서 7 정도여야 한다. 장미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2004년 일본에서 파란 장미를 만들어냈다.

앞으로 성인으로서 만나게 될 많은 불가능해 보이는 시련들에 쉽게 포기하지 말고, 부딪히고 도전하라는 의미를 담아 파란 장미를 선물한다면,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이다.

### # 5월 21일 부부의날

5월 21일 부부의 날이 있다.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5월 21일로 제정되었다. 배우자에게 선물하거나 부모님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도 좋을 것이다. 이날 추천하고 싶은 선물 아이템은 마음을 담은 편지이다. 그동안 잘 표현하지 못했던 진심을 담아 편지를 작성하여 배우자에게 선물한다면, 편지를 통해 부부여도 서로 잘 몰랐던 마음을 알 수 있고 사랑을 더욱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부의 날 선물로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것은 수제 레터링 케이크이다. 수제 레터링 케이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케이크이다. 원하는 디자인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특별한 날을 더욱 아름답게 빛내줄 선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긴 시간 어려움을 이겨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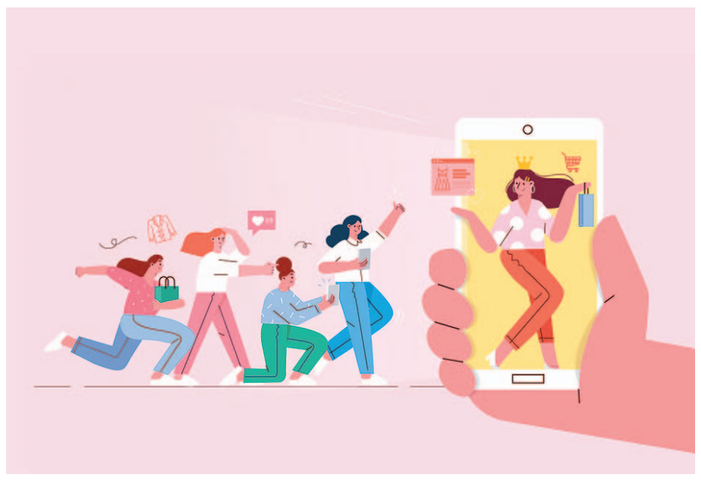
이번 가정의 달엔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따뜻한 5월이 되기를 바란다.

자료출처 : 국어사전(가정의 달)
네이버 블로그[공부하는 직장인]
네이버 블로그[I U H O L I C]
네이버 지식백과 'KISTI의 과학향기 칼럼'
웹사이트 [베리굿], [CaTalk]
위메프-LED 샌드아트 스크린
오형지 수습기자

# 코로나19 속에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

## 가족과 함께 만드는 행복

▶코로나로 집에 머무르는 가족 ▷사진출처 – [freepik]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요즘 ▷사진출처 – [효성FMS 뉴스룸]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우리의 일상은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변화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다. 바로 '가족의 변화'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 재택근무 확대, 비대면 수업 등으로 외출을 최소화하면서 주로 가족 모두가 집에 있는 경우가 많다.

'집'이라는 공간에 종일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가족의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즐겁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함을 느끼거나 '가족과의 시간'으로 맞닥뜨린 '가족의 변화'에 당황하고 있다.

어버이날, 부부의날, 어린이날 등 가족을 위한 기념일이 즐비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코로나19로 변한 일상 속에서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 가족과 안전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 # OTT 서비스 이용하기

극장을 멀리하고 집에서 영화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료 OTT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됐다. 심지어 국내에는 TV보다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전 세계 OTT 가입자는 10억 명을 넘어섰다.

지난 2월, '비대면 설날 보내기'를 권장하기 위해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서 자사 IPTV와 OTT에서 각종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했다. 다양한 무료, 할인, 맞춤형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연휴 간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이러한 이벤트로 OTT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주었다.

누구나 마음속에 가장 좋아하는, 또는 추억 속에 남아있는 드라마나 영화가 한 작품씩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요즘 인기 있는 작품이나 떠오르는 영상이라도 좋다. 웨이브나 왓챠, 넷플릭스, TVING(티빙) 등 다양한 OTT 서비스를 통해 어린 시절 추억의 드라마를 가족들과 함께 보며 그 시절을 회상하고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를 함께 보며 소통하는 것이다. 유튜브로 재미있는 영상을 함께 시청하거나 완결된 작품을 한꺼번에 몰아서 보며 지루한 시간을 달래고 방영 중인 드라마의 새로운 회차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설렘 가득한 시간 또한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 # 배달 음식 시켜 먹기

올해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O2O 서비스 산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플랫폼에서 이뤄진 거래액은 전년 대비 2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O2O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으로 음식 주문, 택시·렌터카 호출, 숙박·레저 예약, 부동산 계약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대표적인 예로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택시 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상품 배송과 음식 배달 수요가 급증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음식 가격과 배달비를 합친 음식 배달 거래액은 전년 대비 4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전년 대비 18.3% 상승한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바쁜 현대인들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외식을 했다. 하지만, 감염의 위험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로 많은 가정들이 외식이 불가피해졌다. 외식 대신 가정 내 식사 횟수를 늘렸으며, 줄어든 외식 식사는 주로 신선식품 활용해 가정 내에서 조리하거나, 배달 음식, 가정 내 가공식품 섭취, 테이크아웃 음식 등으로 대체하는 가정이 증가했다.

그리고 외식 횟수가 줄고 1인 가구의 증가함에 따라 배달 음식 시장이 커지면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배달 앱을 통해 배달 음식 브랜드의 할인 쿠폰을 발급받아 저렴하게 먹을 수 있고 예약 배달 서비스와 유명 레스토랑의 음식이나 전국의 별미를 집에서 먹어볼 수 있는 등 맞춤형 서비스가 다양화되는 것이다.

자주 먹는 집 밥도 좋지만 가끔은 가사 노동을 덜고 집에서 요리하기 어려운 음식들을 배달시켜 소소한 변화를 주는 것은 어떨까?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으로 다가올 것이다.

### # 취미 생활 함께하기

사회적 활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다양한 취미 활동을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배우려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 1월, 대표적인 강의 플랫폼 기업 '클래스101'의 누적 회원 수는 20년도 1월 대비 2.5배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가입자 수도 2배 증가했으며, 강의를 제공하는 크리에이터도 6만 5000명을 넘어섰다. 다채로운 카테고리의 온라인 클래스와 함께 수강에 필요한 준비물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고 강의를 하는 크리에이터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수강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인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클래스 101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워라밸, 소확행, 기가 이코노미 등의 확산과 함께 2030을 중심으로 수요를 이끌어 내 온 택트 트렌드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쇼핑몰의 취미 관련 상품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집에 '홈카페'를 만들어 예쁜 음료와 베이킹을 하거나, 보석 십자수, 프랑스 십자수, 뜨개질 등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취미 생활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기도 했고 취미 생활을 함께하며 가족 간의 이야기 횟수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취미는 진정한 '나'를 찾아보고 새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틀어진 가족 관계를 바로잡아보는 건 어떨까? 화목한 가정내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이 곧 행복한 시간으로 느껴질 것이다. 가족과 함께한다는 것은 지친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처음에는 식사조차 제대로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과의 시간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는 부정적인 반응도 많이 발생했다. 가족과의 관계는 아무도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일방적인 노력으로 행복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의 가족생활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예를 들어 가사 노동을 분담하고 꾸준한 대화를 통해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대화를 할 때에도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들어주는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는 가족이라도 서로를 배려하고 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도 행복한 가정은 계속되고 영원하기를 바란다.

자료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아닷컴 – '저녁이 있는 삶·집콕 취미 열풍'
블로터 – 비대면 설은 'OTT'와 함께
조수연 수습기자

엄광산 맑은 소리

# 먼저 걸은 사람들에게

강현아(광고홍보·3)

내 학교생활을 채우는 사람이 여럿 있지만, 대학 생활에만 특별히 있는 존재는 '선배'들이다. '학교 다닐 맛'이 나게 해주는 멋지고 고마운 사람들. 내게 '선배'에 대한 건 크게 연구회와 독서클럽으로 나눌 수 있다.

집안에서 맏이인 나는 어딜 가서 중간이었음 중간이었지, 막내였던 적은 없었다. 중·고등학교에서 친했던 선배가 거의 없어서 그랬던 것도 한몫했을 거다. 성격 나쁜 누나와 성격 나쁜 형에게 눌리는 우리 집 막내를 애써 무시하고, 환상을 키우곤 했다. 그리고 상상만 하던 그 막내라는 걸 대학교 들어와서 처음 해봤다. 더 정확하겐 연구회 활동을 해서 경험할 수 있었다. 연구회가 아니었다면 그냥 새내기일 뿐 막내라고 할 수는 없었을 거다.

개강 총회가 끝난 후에 지원 문자를 넣었던 건, 내가 정말 잘한 몇 안 되는 일 중 하나로 손꼽을 수 있다. 덕분에 몇몇 사람은 못 해봤을 특별한 기억들이 생겼다. 날 데리고 이것저것 알려줬던 선배들이 있어서 조금은 더 편하고, 좀 더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소소하게 행복해지는 일이 있는데, 선배들이 멋지면 내가 다 기분이 좋다. 스스로 멋있는 일을 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멋져, 하면서 웃는 것도 아니고 남이 멋진 일에 내가 웃는다. 이 정도면 팬인가? 지금도 기억하는 일 중 하나는 공강 시간에 어디론가 달려가던 선배와 인사한 적이 있다. 아주 바빠 보였다. 그런 와중에도 친절한 선배를 보며 '크, 멋쟁이!'라고 생각했다. 후에 같이 있었던 타과 친구도 멋있어 보였단 말을 했는데 아쉽게도 전해드리지 못했다. 그때로 돌아가면 온갖 주접을 덧붙여 전해드릴 수 있는데.

올해 2월, 내가 새내기였던 때 3학년이었던 선배들이 많이 졸업했다. 연구회 활동이 적은 4학년을 제외하고 가장 커보였던 3학년인데, 같은 3학년인 나와는 뭔가 아주 다르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졸업 축하 메시지를 촬영하면서도 어안이 벙벙했다. 코로나로 인해 한 해를 거의 만나지 못했더니 난 아직도 1, 2학년 같고, 왠지 학교에 가면 선배들이 있을 것 같다. 물론 그 말을 했다간 기겁하실 것 같지만. 그리고 웃기게도 내가 연구회를 이끌고 있다. 정말 웃음만 나온다. 과연 후배들에게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줄 수 있을까. 이미 여러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고민하게 된다. 사실 잘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 아마 올해 내도록 그럴 것 같다.

두 번째, 독서클럽. 독서클럽 관련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자주 보고 노는 친구들과 편한 마음으로 신청한 독서클럽이었는데, 학교에서 같은 과라며 같이 팀을 하는 것을 권유했다. 조금은 얼떨결에 만난 사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지금은 내가 누구보다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학교에서 우연히 만나면 너무 반갑고, 길이 엇갈리면 아쉽다. 코로나이기도 하고, 선배들이 4학년이 되며 학교에 나오는 날이 많지 않다. 독서클럽 모임도 줌으로 하는 상황이라 노트북 화면 너머로밖에 만날 수 없었다. 그러다 얼마 전 2차, 3차 도서가 나왔는데 어떻게든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시험 치러 온 선배들을 붙잡고 책을 건네줬다. 그 짧은 시간에도 시험 팁을 알려주는 걸 보면 아직도 내가 새내기 같다. 물론 그 팁은 유용하게 썼다.

4학년의 일정은 질릴 정도로 아주 바쁜데도, 책도 꼼꼼하게 읽어오고 토론하는 선배들을 보면 나도 그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도 바쁜데, 4학년이 되고 독서클럽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뒷일 생각 안 하고 신청할 것 같기는 하다.

생각이 많아지는 한 해다. 받은 게 많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도 해주고 싶다. 하지만 이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미안하기만 하다. 선배들이 더 대단해 보인다. 내가 고학년이 되고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한 소리 들을 생각이지만 내년이 안 왔으면 좋겠다. 선배들이 고통받는 건 싫지만 지금보다 더 자주 못 보는 건 더 슬프니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니 놀라지 않길 바란다.

본문에서 선배라는 호칭으로 모두 통일했지만, 그 호칭을 못 견뎌 하는 언니, 오빠들 언제나 감사했고, 또 고맙습니다! 본인 이야기 같다, 싶으면 연락해주세요! 아마 맞을 겁니다. 모두 제게 그랬거든요. 항상 언니, 오빠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죽비소리

# 가족의 형태

고서영(치위생학과·1)

가족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사람들이 떠올리는 가족의 모습은 다양할 것이다. 사람마다 떠올리는 가족의 인원, 구성원들이 다양할 것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가족이라고 하면 나, 언니, 엄마, 아빠 4명의 구성원을 떠올렸고 이렇게 떠오른 생각이 우리 가족의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집에 친척들이 온다고 나에게 말해 줬다. 나는 친척들이 그냥 놀러 오시는 거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친척들이 부모님과 나누는 얘기가 심상치 않았다. 외할머니께서 쭉 우리 집에서 사신다는 얘기였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 말을 들었을 때 막막했다. 그리고 걱정이 많이 되었다. 상상에서도 실제로도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 4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할머니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서 굉장히 어색했고 불편하게만 느껴졌다. 내가 살가운 성격도 아니라 외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불편했고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나에게는 한집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쭉 살아야 한다는 얘기는 청천벽력 같았다. 그렇다고 내가 어쩌겠는가. 그냥 함께 살아야 했고, 최대한 외할머니와 부딪힘 없이 지내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외할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괜찮았다. 나는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외할머니와 부딪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불편함을 못 느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외할머니와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면서 불편함이 늘어났다. 외할머니는 밥심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신다. 그것부터 나와 달랐다. 나는 무언가를 먹고 싶거나 배가 고플 때 식사를 하는 편인데 외할머니는 아침, 점심, 저녁을 꼭 챙겨 먹기를 바라셨다. 아침밥보다 아침잠이 더 소중했던 나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다. 아침마다 외할머니의 소리에 깨던 나의 불만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또 다른 점은 TV 시청과 관련해서 불만감이 생겼다. 할머니는 트로트와 연속극을 매우 좋아하신다. 그래서 우리 집 TV는 하루 24시간 트로트나 연속극 채널이 틀어져 있었다. TV 보는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 이 점 역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되어버렸다. 이 외에도 할머니와 안맞는 부분은 많았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 점점 나의 불만은 쌓여만 갔고, 어느 순간 사소한 것들도 불만이 되어버렸다. 그때부터 더더욱 방 밖으로 안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냥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다. 사실 그게 편했다. 방 밖으로 나가면 또 부딪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외할머니에게 진심으로 화를 낼 수도 있겠다는 것을 나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다. 아무리 불편해도 우리 할머니인데 할머니에게 짜증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이런 모습들이 신경이 쓰였는지 엄마가 나에게 와서 엄마와 외할머니의 얘기를 들려주셨다. 엄마의 어릴 적 얘기, 외할머니와의 추억 얘기 등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다. 이야기 속 어릴 적 엄마는 나의 어릴 때와 다를 게 없었고, 이야기 속 외할머니는 우리 엄마와 다를 게 없었다. 요컨대, 최근 외할머니가 멀리 사셨기 때문에 정말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외할머니가 혼자 지내시는 게 외롭다고 하셨다. 엄마는 나에게 "엄마도 엄마의 엄마가 보고 싶었어"라고 말했는데 그때 기분이 굉장히 이상했다. 엄마는 나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딸이었고 외할머니도 나의 외할머니이기 전에 우리 엄마의 엄마였다. 나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 나 하나 편하자고 엄마의 소중한 사람을 외면했던 것이다. 나에게 가족은 나, 언니, 엄마, 아빠가 다였지만 외할머니는 엄마의 가족이었다. 그래서 나는 외할머니와 대화 나누는 시간들을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했고, 나는 외할머니를, 외할머니는 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가족은 부모님과 나, 언니가 다인 것 마냥 생각했던 나에게 이제 가족에 대해 묻는다면 나는 엄마, 아빠, 나, 언니 그리고 외할머니가 나의 가족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가족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냥 나의 가족 구성원이 보편적인 가족이라고 정형화시켰다. 즉, 내가 만들어 놓은 편견에 살고 있었다. 가족의 기준은 정해진 게 없는 것 같다. 앞으로 나의 가족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언제나 우리 가족의 관계를 객관화시켜 성찰하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이달의 명언

오늘의 작은 실천,
1도의 변화가 쌓이면
당신의 삶과 가족관계가 변합니다.
—오은영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빅터 위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여 헤어짐의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을 깨닫는다.
—기 드 모파상

## 네 컷 만 화

### 가정의 달

가정의 달 5월을 의미 있고 예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 건강하고 행복한 5월 되세요~

## 사 설

# 부모님과 자식은 왜 서로에게 날카로울까?

최근 통계청의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달성했다. 특히 2018년 0.9명대에 들어선 지 2년 만에 0.8명대로 급락했다. 21세기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바쁜 일상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육아 교육, 더 나아가 부모와 자식 간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우리 가족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감정이 잘 발달돼 있어 언어로써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의 관계가 미숙하여 결핍과 갈등을 겪고 있는 가족이 사회 곳곳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부모의 전형적인 모습이 잔재되어 있는 한편, 자식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대화 자체를 꺼려 하는 모습도 자연스레 일상 속에 들어와 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절대 논리적일 수 없다. 사랑하는 만큼 상처도 받는 관계이다. 절대적인 이해를 바라는 관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모 자식 간 갈등,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불편한 감정을 잘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의견 표현 방법에는 먼저 부모님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라는 식으로 적대감이 없음을 설명한 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의 잘못된 의사 표현을 부모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발로 받아들이면서 서로 불편해진다. 인간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 하나의 개체로써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때론 자식은 부모에게 싫은 소리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해결되지 않고 언젠가 감정이 폭발한다. 특히, 사랑을 전제로 맺어진 가족은 각자 불편한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격분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

둘째, 드러난 말보다 그 속에 담긴 의도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한다. 어릴 적 다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께 팔이 아프다고 반창고를 붙여달라고 할 때가 있다. 아이가 자꾸만 반창고를 붙여달라고 하는 진정한 이유는 부모의 긍정적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종종 부모는 "어디 보자, 에이, 별로 안 다쳤네, 반창고 붙일 일은 아니야"라고 상황을 무마시킨다. 결국 아이는 성인이 되어 자신의 감정은 숨겨진 채 겉으로 드러난 말로써 상대방을 오해하게 된다. 서로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아차리는 눈이 있어야 적절한 관심을 줄 수 있다.

셋째, 복고를 새롭게 즐길 수 있는 뉴트로를 이용해 서로의 공감대를 찾아보는 것이다. 뉴트로는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신조어로, 실제로 과거에 유행했던 디자인이 수십 년 뒤에 다시 유행하는 상황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복고는 기성세대에게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추억을 자극한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현대 문물과 다른 옛것의 새로움과 색다름을 느껴 과거의 풍속을 그대로 재현할 뿐만 아니라, 현대적 감각을 되살려 재해석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뉴트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세대 간 시대적 차이를 인정하고 과거와 현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날들이 많이 있다. 이를 기회 삼아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선물과 편지 또는 따뜻한 말을 서로에게 건네는 것이다. 일상에서 늘 말을 하며 살지만,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이 말이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를 사랑하는 만큼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 누구와의 관계보다도 그 방식을 고치려고 가장 노력할 것이다. 상대의 마음을 해결해 주려고 애쓰기보다 흘러가는 마음을 유심히 살펴본 후 진심을 담아 구체적인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어느 순간 빠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부모와 자식 간의 손을 놓아버리는 시간이 늘고 있다. 어쩌면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자신을 많이 돌보지 못해 가장 편안한 부모와 자식에게 날카로운 쓴소리를 했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적어도 서로의 갈등을 알아야 뒤돌아서 성찰을 해보는 시간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가족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려고 하는 시간과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가족 구성원의 탓을 하고, 한발 물러서서 자기 자신을 보는 안목을 잊어버리게 된다.

목회 칼럼

# 코로나19로 넘치는 미담

유 의 신 교목실장

우리는 자고 깨면 새로운 확진자 수로 시작하는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게 되기를 희망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이토록 세계 역사 속에서 온 인류에게 오랫동안 초미의 관심사로 올랐던 사건이 코로나19 말고 또 무엇이 있었나? 게다가 온통 부정적 소식들과 사건 사고들 가운데 우리 서민들의 마음에 희망의 촛불마저 꺼져 가는 애틋한 마음이 살짝 내 속에 우울증을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동안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엄청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 자연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살던 우리에게 자연의 모든 생태계가 인간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서 자연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다준다. 그동안 우리는 초개인주의와 나 홀로를 추구하는 문화 속으로 급격히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속도가 줄어들고 가정과 가족,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나라 간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 개인의 감염이 주변에 끼치는 영향을 즉각 뉴스 보도로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부정적인 가짜 뉴스 가운데서 간간이 들리는 코로나19 숨은 미담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의료진들의 목숨을 건 질병과 싸우는 모습은 직업의식을 떠나서 인류애를 보게 되는 미담 중의 미담일 것이다. 영세 상인들을 위한 임대료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 마스크 대란 시 자원하여 재봉틀로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 무상 제공하는 손길들, 취약계층을 위하여 밑반찬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 대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료급식을 쉬지 않고 제공하는 봉사 단체들, 기부금과 물품으로 지원하는 사랑의 손길들, 교회 부속건물이나 개인 병원을 질병 관리를 위하여 내어 놓는 곳. 그중에서도 잊히지 않고, 오래 남아있는 미담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할 당시 서울 통닭집 사장은 택시로 통닭 75마리를 대구까지 보내서 의료진들을 격려했다는 소식이다.

우리 대학에서도 동아리에서 마스크를 제작하여 기부하기도 하고 손소독제를 직접 만들어서 지역에 나누기도 하였다. 이는 대단한 청춘들의 발상이 아닐 수가 없다. 계속하여 교내 총학 주최로 코로나19 미담들을 수집하여 나누는 캠페인을 제안해 본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 속 나만의 여유와 여가를 즐기는 것으로만 살아선 안 된다. 다시 말해, 나의 여가를 즐기기 위하여 자유를 누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필수 생활에 위협을 주고, 멈추게 하는 것은 이웃을 의식하지 않고, 이기적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있어서 마음대로 여행하고 다녀도 된다는 개인주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방종(放縱)인 것을 알아야 한다. 나의 여유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교훈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

# 동 서 만 평

글·그림 정희진

■ 부모의 품을 벗어나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신입생 신경수 인터뷰

# 부모 곁을 떠나 첫 사회생활을 하다

## 혼자 생활하니 더욱 그리운 부모님의 곁

▶가족들과 여행 가서 찍은 신입생 신경수

▶가족들과 제주도 가서 찍은 신입생 신경수

벚꽃이 지고 일교차가 부쩍 커진 5월에 늘 그래왔듯 학교 수업을 받기 위해 먼 곳에서 온 자취생과 기숙사생이 있다. 특히, 올해 입학생은 코로나19로 엎친 데 덮친 격 부모님 품을 벗어나 첫 독립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올해 입학생 중 첫 자취 생활을 하고 있는 신입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Q.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입학한 21학번 관광학부 신경수라고 합니다.

**Q. 부모님의 품을 떠나 처음으로 자취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자취생활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심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A.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저의 힘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고 좀 더 성인이 되는 기분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싱숭생숭했던 것 같습니다.

**Q. 혼자 자취 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편했거나 어려웠던 점 있으신가요?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A.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 밥해줄 사람이 없고 반찬도 없어서 밖에서 사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번 용돈이 떨어져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있다 보니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빨래를 할 때 혼자서 하다 보니 세제 비율이나 양 조절을 하지 못해 버거울 때가 많아서 불편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부모님의 품을 더욱더 상기시켰습니다.

**Q. 부모님께 뵈러 가는 일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부모님과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요?**

A. 본가로 가면 3일이나 4일 정도 있는데, 그중 하루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러 가거나 드라이브를 통해 친할아버지 댁에 들러 인사를 하러 갑니다. 다음에 본가에 가게 된다면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만나 그냥 일상 얘기나 소소한 추억거리를 얘기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Q.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A. 부모님은 저에게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자주 안 보고 가끔 만나지만 항상 친구처럼 편안하게 잘 대해주시고 고민을 얘기할 때도 잘 들어주십니다. 또한,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친구 같은 느낌이 들고, 웃으며 장난도 많이 쳐주시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 포근한 마음이 드는 거 같습니다.

**Q. 부모님께 들은 말 중 가장 기뻤던 말과 가장 상처받았던 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기뻤던 말은 용돈을 더 올려준다는 말과 제 생일 전날에 얘기해 준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제 생일 전날 본가에 내려갔었는데 당시 엄마가 저에게 "대구 안 왔으면 내가 직접 부산에 간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가 감동적이었고, 가장 기뻤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슬펐던 말은 제가 용돈 말고 엄마 카드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카드를 청구를 한다는 말이 제일 슬펐던 말인 것 같습니다.

**Q. 부모님께 드는 후회가 있나요?**

A. 첫 번째로 제일 후회되는 일은 제가 공부를 안하고 놀기를 좋아할 때였습니다. 부모님 몰래 불량한 행동을 한 것 같아 후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라는 시간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 후회가 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해주고 싶은 말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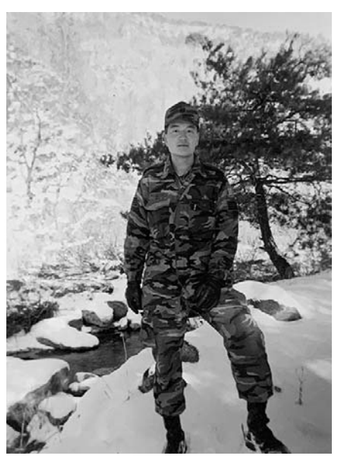
A. 집을 떠나 부산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집에 혼자 있어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부모님이 많이 생각났어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렇게 자취를 도와주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혼자서 밥도 잘 챙겨먹고 있으니깐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용돈 좀만 더 올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최혜미 수습기자

■ 부모의 품에서 자식을 떠나보낸 신입생 김규리 아버지 인터뷰

# 몸이 멀어져도 마음은 그대로

## 자녀를 향한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



▶김규리 학생 아버지의 군인 시절

▶자영업자로 일하는 김규리 학생 아버지의 모습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이유로 서로 떨어져 지내는 가족도 있다. 그중 대학 진학으로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부모님을 동서대학교 신문사가 만나보았다.

**Q.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전 동서대학교 광고홍보학과에 다니는 김규리 아빠 김춘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경기도에서 작은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처음에 자식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 기숙사로 떠난다고 할 때 어떤 심정이셨나요? 혹은 반대하지는 않으셨나요?**

A. 맞벌이를 하지만 늘 주변에서 조부모님이 보살펴 주셔서 이전까지 혼자 둔 적이 없었어요. 또 대전에서 부산이면 가까운 거리도 아니라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이번 기회에 혼자 자립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적극 찬성했습니다.

**Q. 집이 조용해져서 아직은 어색할 때가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의 심정과 더불어, 가장 자식이 보고 싶은 순간은 언제인가요?**

A. 저희는 자식이 하나뿐이라 아이가 부산에 가고 없으니 집이 너무 적막해요. 대화를 엄청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없으니까 많이 허전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맛있는 저녁을 먹을 때 제일 생각납니다.

**Q. 오랜만에 자식이 집에 온다면, 그리고 다시 떠나보내는 순간이 온다면 집에 있는 동안 자식과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요?**

A. 맛있는 밥을 많이 먹여야죠. 원래 마른 데다가 입이 짧아서 잘 먹지 않는데, 기숙사에 있으니 하루 세 끼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챙기려고 하지도 않고. 집에 오면 소고기라도 실컷 먹게 사 주고 싶습니다.

**Q. 마냥 어렸던 자식이 성장해 부모의 품을 벗어나 사회로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자식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A. 지금의 나를 버티게 하는 이유입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하는 자식과의 전화 한 통이 큰 힘이 돼요. 저희가 자영업을 하느라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해요. 이렇게 힘들어도 내 자식이 그만큼 편안하게,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어서 그걸로 위안이 됩니다.

**Q. 자식에게 들은 말 중 가장 기뻤던 말과 가장 상처받았던 말은 무엇인가요?**

A. 갖고 싶었던 것을 사 주었을 때 고맙다고 하면 그걸로 항상 기쁘죠. 일이고 뭐고 다 아이한테 뭐든 해 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상처받았던 적은 일하느라 바빠서 진로 상담이나 대학 진학에 제대로 관심을 주지 못했는데, 그때 엄마, 아빠는 왜 내 일에 관심을 안 주냐고 하길래 속상했습니다. 상처받은 것은 아니고, 본인이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자란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Q. 자식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 중 후회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한 일은 무엇인가요?**

A. 어릴 때는 무조건 공부만 시키려고 했어요. 아이가 배우는 족족 잘 해내니 뿌듯하고 대견해서 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다섯 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한테 학습지를 제대로 안 한다고 소리 지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도 제일 후회됩니다. 어린아이한테 소리 지를 구석이 어디 있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Q.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부탁드립니다.**

A.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조금 달라졌을까?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너는 나중에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잘하는 것도 많은 너. 그런 네가 아빠는 항상 기특하다. 무슨 일이든지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야. 사랑한다.

김규리 수습기자

# 성경 속 인물_에스겔

▶우리 죄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선지자 에스겔의 메시지 ▷사진출처 – 위키백과

**#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닿아 있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는 뒤돌지 않고 각자 자기 앞으로만 곧장 갔다.**

성서에서 가장 기묘한 책은 구약성서에 포함된 에스겔서다. 선지자 에스겔은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 바빌론으로 끌려간 수많은 유대인들 중 한 사람이었다.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다. 에스겔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혹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이다. 에스겔서는 금속처럼 반짝이는 '네 생물'이 등장하는 꿈으로 시작한다. 그 생물들은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졌고, 그들의 위에는 하나님의 옥좌가 빛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 생물은 천사의 한 종류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1968년 에릭 폰 다니켄(Erick von Daniken)이 쓴 베스트셀러 「하나님들의 전차 Erinnerungen an die Zukunft」는 에스겔이 외계인을 본 것이라는 이론을 전개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있다.

에스겔서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37장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다. 이것은 영적인 질문이다. 즉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물음으로, 답은 예스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른 뼈"를 노래하는 흑인 영가가 탄생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낙점했다고 믿고, 망명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을 위로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죄를 꾸짖었다(에스겔 3 : 16). 그는 특히 사제와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도덕적 지침을 주지 못한다며 호되게 비판했다. 그 자신도 사제이자 선지자였다. 그가 말하는 도덕적 지혜는 의미가 깊다. 예를 들면 그는 아이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 누구나 자신의 죄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스겔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와 함께 구약성서의 대예언서로 분류된다. 다른 열두 권의 소예언서보다 분량이 길어 대예언서라는 이름이 붙었다. 미술에서 에스겔은 주로 흰 수염을 기르고 사나운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가 꾼 꿈에 걸맞은 모습이다. 라파엘로가 그린 「에스겔의 꿈」(1518)은 그의 꿈 내용을 비슷하게 표현했다. 회색 수염을 기르고 상반신을 드러낸 하나님이 세 천사를 거느린 채 독수리, 날개 달린 황소와 사자를 탄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구약시대와 신약 시대의 사이에는 메르카바(Merkabah)라는 유대 신비주의가 성행했다. 메르카바 교도들은 단식을 하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에스겔처럼 하나님과 천사들이 등장하는 꿈을 꾸고자 노력했다. 영화 「펄프 픽션」의 한 등장인물은 에스겔서의 한 부분을 길게 인용한다. 하지만 그 대목은 완전히 허구이며, 에스겔서는 물론 성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보는 성전의 부분부분 하나하나 정확하게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했고 정확하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에스겔 7 : 9)

"내가 그들에게 한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술을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22 : 1-5, 23-31)

"그러므로 내가 내 양 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 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34 : 22-24)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 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7 : 23)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에스겔**
**네이버 블로그 – 마음과 지향**
**최혜미 수습기자**

#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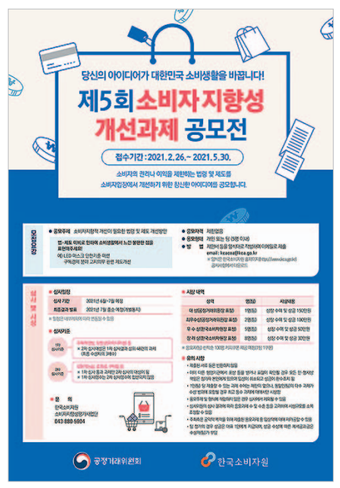
■ 2021 LMO 안전관리 콘텐츠·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 기간 : ~21.06.30.(수)
- 응모 대상 : 제한 없음
- 공모 분야 : 사진/영상, 광고/마케팅 기획/아이디어

■ 2021 인터넷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 접수 기간 : ~21.09.30.(목)
- 응모 대상 : 제한 없음
- 공모 분야 : 디자인/영상/문학

■ 제9회 교보문고 스토리 공모
- 접수 기간 : ~21.05.31.(월)
- 응모 대상 : 제한 없음
- 공모 분야 : 문학/글/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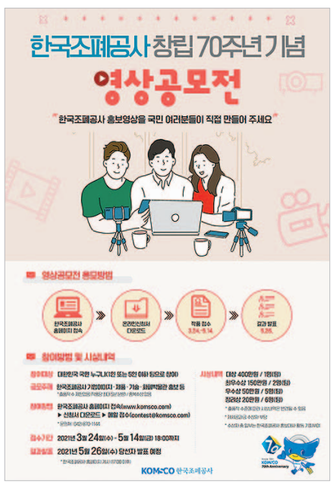
■ 제9회 소방 산업 우수 디자인 공모전
- 접수 기간 : ~21.06.10.(목)
- 응모 대상 : 제한 없음
- 공모 분야 : 디자인/공학/건축/예체능

■ 부산시설공단 온택트 나눔 스토리 공모전
- 접수 기간 : ~21.05.12.(수)
- 응모 대상 : 제한 없음
- 공모 분야 : 기획/아이디어




■ 제5회 소비자 지향성 개선 과제 공모전
- 접수 기간 : ~21.05.30.(일)
- 응모 대상 : 제한 없음
- 공모 분야 : 기획/아이디어, 광고/마케팅 논문/리포트, 과학/공학

■ 제5회 관광지식 카드뉴스 공모전
- 접수 기간 : ~21.05.06.(목)
- 응모 대상 : 일반인, 대학생
- 공모 분야 : 광고/마케팅, 디자인/예체능 웹/모바일/플래시




■ 한국조폐공사 창립 70주년 대국민 영상공모전
- 접수 기간 : ~21.05.14.(금)
- 응모 대상 : 제한 없음
- 공모 분야 : 광고/마케팅, 영상/UCC/사진 디자인/예체능

■ 슬립테크 2021 대한민국 꿀잠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 기간 : ~21.05.31.(월)
- 응모 대상 : 제한 없음
- 공모 분야 : 기획/아이디어, 과학/공학 디자인/예체능

■ 특허청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 기간 : ~21.05.26.(수)
- 응모 대상 : 제한 없음
- 공모 분야 : 기획/아이디어

■ 2021년 교통사고 줄이기 교통안전 수기 공모전
- 접수 기간 : ~21.05.16.(일)
- 응모 대상 : 제한 없음
- 공모 분야 : 문학/글/시나리오

■ 제7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 접수 기간 : ~21.05.30.(일)
- 응모 대상 : 제한 없음
- 공모 분야 : 광고/마케팅, 영상/사진 디자인/예체능

## 동서인들이 뽑는 우수기사!

가족과 읽고 싶은 기사 또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기사를 투표해 주세요.

5월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기념일이 많아 가족이 더 생각나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과 함께 신문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족과 함께 읽고 싶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사를 짧은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예 시** 1면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또는 이유진 기자

기사 제목이나 기자 이름을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짧은 이유와 함께 아래의 번호로 보내거나 산학협력관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의함에 넣어주세요.
※ 편집국장 : 010-6771-8237
※ 5월 30일까지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당첨자는 5월 31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학 과 : _____
- 학 년 : _____
- 이 름 : _____
- 연락처 : _____